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Frame Analysis of Corona-19 News on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Focused on KBS <News 9>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Siyoung Pyo(siyoungpyo@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유형 및 형식’, ‘전문성’, ‘감염병 관련 사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각’, ‘확산’, ‘회복’이라는 세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 473개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세 시기 모두 감염병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스트레이트 보도’와 ‘정보전달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 상황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감정적 전달’보다는 ‘사실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2기에서 감염병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인시키는 ‘도덕적 평가 프레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전히 전문기자보다 비전문 기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염병 관련 사안은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대처’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의 심층성 및 전문성 고양’, ‘특정 주체에게 도덕적 책임을 귀인시키는 보도 행태의 지양’, 그리고 ‘다양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시’라는 함의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감염병 | 코로나19 | 재난방송 | 프레임 분석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KBS's 'Type and Format', 'Professionalism' and 'Infectious Disease-related Issues' appear in the media news related to Corona-19 under the three periods of 'discovery', 'diffusion' and 'recovery'.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473 media news, In all three periods, 'Straight Report' and 'Information Delivery Frame' were high to inform the truth of the infectious disease. In addition, the 'transmission of facts' frame was more used than the emotional transmission in reporting the risk situation. However, the proportion of 'moral evaluation frames' in the second phase was relatively high, and the proportion of non-professional journalists was still overwhelmingly higher than professional journalists. Meanwhile, infectious disease-related issues had the most content on 'infection control', and relatively little information on how to deal with them.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Increased in-depth and professional press coverage', 'Refrain from moral evaluation frames' and 'a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various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 keyword : | Infectious Disease | Corona-19 | Disaster News | Framing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높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감염병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이 일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사건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해당 사건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2]. 더욱이 감염병은 일반 보도와는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따라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적절하게 보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보도하는 언론의 과장된 추측성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초기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언론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들을 빠르게 보도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지적을 받은 바 있다[4]. 이러한 비판은 지난 2003년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H1N1, 신종인플루엔자)와 2015년 메르스(MERS, 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 보도준칙'과 같은 법적·제도적 측면의 대안이다[5].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수많은 언론기관과 언론인으로 하여금, 여타의 재난방송들과는 달리 보다 신중함을 요하는 감염병 보도와 관련하여 기준점을 제시해준다. 국내의 경우 2012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이 있으나, 언론인들은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이었던 기존 질병 관련 보도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6].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

합회,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한 바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국내 감염병 보도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감염병이 대유행 시기를 거쳐 팬데믹(pandemic)에 이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 보도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진 지금,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공격적 책무가 부과되는 공영방송 KBS의 감염병 보도행태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2). 특히 공영방송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감염병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방송의 감염병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도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프레임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향후 질병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7], 해당 영역의 연구가 많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최근 발병한 감염병인 코로나19를 대상으로, KBS 보도 현황을 감염병 보도의 '유형 및 형식', '전문성', '감염병 보도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영방송이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장차 국내 감염병 보도지침 제작에 있어 본 연구가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위험과 관련된 충동을 완화시키고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은[8], 각종 자연재해 및 질병으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위험이 전개되는 지금

과 같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미디어 의존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히 생소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일수록 해당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1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염병과 같은 신종질병의 경우 사람들이 주로 미디어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11].

미디어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해당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2]. 즉 위험의 실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디어는 특정 주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12]. 따라서 이용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13]. 이렇듯 위험 상황에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창구가 되면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특정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와 같은 프레임(frame, 혹은 framing)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감염병 보도의 경우,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프레임에 귀납적·연역적으로 파악하는 프레임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

프레임 연구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분야로서, 학자들은 각기 다른 사례를 통해 개별적인 프레임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4], 연구대상에 따라 구성되는 프레임 유목과 그에 대한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승례문 화재사건 보도의 프레임을 연구한 김성진·박경우(2009)의 연구에서는 보도 내용의 주제에 따라 '현장진술', '사고원인', '책임소재 규명', '관리점검실태', '대책마련', '복구복원', '상징성 및 가치', '시민반응', '기타'라는 총 9개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화재로 인한 문화재 유실'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복구복원 관련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다[15]. 이에 반해 장솔지와 하승태(2016)의 연구에서는 신종플루와 메르스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대통령의 성별과 발병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해

결', '국제관계', '공감/배려', '변화지향' 프레임으로 유목을 분류함으로써, '대통령 대처'라는 분석대상에 맞는 프레임 유목을 구성하였다[16].

한편 감염병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는 전염력이 높은 질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기에 위험/위기, 진단/예후, 예방, 대책 등과 같은 관련 프레임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17]. 이와 관련하여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한 송해룡·조항민(2015)의 연구는 프레임 유목을 '의학',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예방', '위험', '갈등', '사회적', '상업적', '정책' 프레임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중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8]. 나아가 최민음과 정희수(2018)는 대분류 차원에서 큰 틀의 프레임 유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에 맞춰 소분류 프레임 유목을 구체화하였는데, 대분류는 '사실 전달', '정보성', '감정적', '책임' 프레임으로 분류하고, 소분류는 각 대분류에 맞춰 '확진/소두증', '위기/재난', '원인/예방', '증상/진단/검사', '위험성/불안', '안심/안정', '비난/불참', '대책 마련'이라는 8개의 프레임 유목으로 구체화하였다[7]. 특히 위 연구는 '위험' 프레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전달' 프레임과 불안을 조장하는 '감정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접근했는데, 재난 상황 특성상 위험 프레임 비중이 많은 것은 당연하나 모든 위험 프레임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위험 프레임은 오히려 재난 상황에서 송해룡·조항민(2015)이 지적한 '사회적 긴장도'를 높여야 하는 언론의 의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들은 위험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널리즘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19], 이는 재난보도를 함에 있어 중립적인 논조를 통해 재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를 접한 시청자로 하여금 재난보도가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과도한 공포나 분노를 유발하는 보도는 재난보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한편 감염병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보도

프레임의 문제점은 예방이나 대책과 관련된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고[17],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며[20], 나아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7], 정리할 수 있겠다. 즉 언론이 사건의 즉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위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특히 대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21],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그 통제 정도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고, 어떠한 정보가 언제 제공되느냐에 따라 감염병 통제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선별진료소 이용방법' 등과 같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적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문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취재원을 활용하는가[22][23], 그리고 담당 기자의 전문성은 어떠한가[18][24] 등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전문성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에서 특히 중요한데, 감염병은 여타의 재난 상황과 달리 의료 관련 정보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학전문기자를 중심으로, 분석력 있는 보도가 시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병 관련 보도는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관련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제공하는 심층 보도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가짜뉴스로부터 구분되는 양질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지침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최근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된 함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감염병 보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유목들을 중심으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심층적으로 보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도의 '유형 및 형식'을, 의료 관련 정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기자가 적절한 취재원을 활용하여 분석력 있게 보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성'을, 나아가 감염병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사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감염병 보도 현황을 파악하고 '감염병 보도준칙'의 보완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KBS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유형 및 형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KBS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KBS '코로나19' 관련 보도 내 '감염병 관련 사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표본수집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기본발전법」에 따라 모두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KBS(한국방송공사)는 동법 제40조의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에 의거하여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정부 기관의 협력하에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난주관방송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KBS를 분석대상 채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KBS1에서 방영 중인 뉴스 프로그램 중 <뉴스 9>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뉴스 9>이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표본은 직접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별 뉴스 프로그램에 일일이 접속하여 그 제목 및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목에 '코로나19' 혹은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수집했다. 단 내용이 '코로나19'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도일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수집 기간은 감염병 보도 연구에서 크게 '발각/확산/대유행(혹은 회복)'이라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4][7][16], 코로나19의 발병 상황 역시 전염력이 높은 질병의 특성상, 폭발적인 대유행 시기와 확진자의 대폭 감소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분석 시기를 선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폭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3기를 대유행이 아닌 회복기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를 1기(발각), 국내 첫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어 확진자 증가폭이 매우 컸던 2월 29일(신규 확진자 수, 909명)을 전후로 하여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를 2기(대유행), 마지막으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시 한 자릿수로 회복되었던 4월 19일(신규 확진자 수, 8명)부터 5월 2일까지를 3기(회복)로 설정하여 수집하였고[25], 그 결과 총 473건의 보도가 수집되었다.

2.2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

2.2.1 유형 프레임

유형 프레임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7],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스트레이트 보도',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기획하여 취재한 '기획/심층 보도', 취재 대상의 인터뷰 내용을 주로 보도하는 '인터뷰', 현장에 나가 직접 취재하며 보도하는 '리포팅 보도'로 구분하였다.

2.2.2 뉴스 프레임

뉴스 프레임은 1차적으로 이희영과 김정기(2016)의 연구에 따라 '위기/위험', '의혹/고발', '갈등', '정보전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기/위험'은 보도에 있어 위기나 위험 상황을 주로 전달하거나 강조하는 프레임이 해당되는데, 그 속성상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적으로 위기/위험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위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전달' 프레임과 감정적으로 전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감정전달' 프

레임으로 구분하였다[7].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고발하는 프레임'을 의미하는 의혹/고발의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확진자 혹은 집단에 대한 윤리적 틀이 적용되는 '도덕적 평가' 프레임과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지적과 관련된 '구조적 평가' 프레임으로 나눠 접근하였다[4]. 갈등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충돌을, 정보전달은 이 외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제공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2.2.3 기사 논조 및 기사 정서

기사 논조와 정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조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구분하고, 정서는 '공포', '불안', '분노', '공감', '희망/안도', '기타'로 재구성하였다[26]. 기사 정서의 경우 한 기사 내에 여러 정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최대 2개까지 복수로 코딩하였다.

2.2.4 정보원 활용 및 분석력

정보원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했는데[7][12][18], 우선 정보원 출처의 경우 '국내 정부 및 지자체', '해외정부 및 지자체', '의료 집단 및 의료진', '국내 전문가', '해외 전문가', '해외 언론', '국제기구', '관련 기업체', '관련 단체', '일반 시민', '관련 시민', '기타', '정보원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보도하는 기자의 전문성은 의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기자'와 그 외의 '비전문 기자', 그리고 '특파원'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정보원의 경우 한 기사에서 여러 정보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 3개까지 중복 코딩하였다.

뉴스의 분석력은 신문기사에 사용된 코딩항목을 방송에 적용한 오해정·최지향(2019)의 논문을 참고하여 기사 내 과정과 결과만 있으면 '분석력 없는 보도'로, 여기에 원인 혹은 전망까지 포함한다면 '분석력이 있는 보도'로 보았다[27].

2.2.5 감염병 보도 관련 사안

감염병 보도 관련 사안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감염과 사망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와 위험의 크기 및 유행 전망에 관한 정보인 '질병역학', 질병의 특성과 의료서

비스에 관련된 정보인 '진단치료', 방역 현황-질병 관련 정책백신 개발 등과 관련된 정부 및 조직 중심의 대응 정보인 '감염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인 '일반대처', 증상이 있을 경우의 개인 및 집단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인 '감염대처'로 재구성하여, 관련 정보가 언론보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1]. 일반적으로 한 기사 내에 단 하나의 정보만 있기 보다는 여러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감염병 보도 관련 사안의 경우 최대 5개까지 복수로 코딩하였다.

2.3 코더간 신뢰도

연구결과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 1인 외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대학원생(석사과정)과 졸업생 총 2명이 전체 연구 데이터의 10%를 크리펜도르프 알파값을 사용하여 사후 코딩한 결과, 유형 프레임은 .98, 뉴스 프레임은 .87, 기사 논조는 .93, 기사 정서는 .93, 정보원 출처는 .95, 기사 전문성은 1.0, 뉴스 분석력은 .85, 감염병 보도 관련 사안은 .91로 나타나 대체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KBS 감염병 관련 보도의 '유형 및 형식'

분석대상으로 도출된 473개의 KBS 감염병 관련 보도의 유형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세 시기 모두 스트레이트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트레이트 보도는 총 407건으로 86%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인터뷰가 7.4%, 기획/심층 보도가 4%, 르포성 보도가 2.5%순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이트 보도에 비해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형 프레임의 경우 세 시기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8.921, df=6, p>.1$).

다음으로 뉴스 프레임의 경우 정보전달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기/위험-사실전달이 25.6%, 의혹/고발-도덕적 평가가 11.4%, 갈등이 9.3%, 위기/위험-감정전달과 의혹/고발-구조적 평가가 각각 7.2%순으로 뒤를 이었다. 뉴스 프레임은 시기별로 차이가

표 1. 유형 프레임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스트레이트 보도	123 (82)	226 (86.3)	58 (95.1)	407 (86)
기획/심층 보도	9 (6)	10 (3.8)	0 (0)	19 (4)
인터뷰	13 (8.7)	21 (8)	1 (1.6)	35 (7.4)
르포성 보도	5 (3.3)	5 (1.9)	2 (3.3)	12 (2.5)
합계	150 (100)	262 (100)	61 (100)	473 (100)

$\chi^2 = 8.921, df=6, p>.1$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 = 63.377, df=10, p<.001$), 구체적으로 1기와 3기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전달 프레임이 각각 51.3%와 59%로 가장 많았지만, 2기에서는 정보전달 프레임이 27.9%, 위기/위험-사실전달 프레임이 27.5%, 의혹/고발-도덕적 평가 프레임이 19.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고루 나타났다. 특히 1기와 3기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의혹/고발-도덕적 평가 프레임이 2기에서는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1기와 2기에서 의혹/고발-구조적 평가 프레임이 각각 6.7%와 9.2%로 나왔는데 반해, 3기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표 2. 뉴스 프레임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위기 위험	사실전달	34 (22.7)	72 (27.5)	15 (24.6)	121 (25.6)
	감정전달	15 (10)	16 (6.1)	3 (4.9)	34 (7.2)
의혹 고발	도덕적 평가	1 (0.7)	51 (19.5)	2 (3.3)	54 (11.4)
	구조적 평가	10 (6.7)	24 (9.2)	0 (0)	34 (7.2)
갈등	13 (8.7)	26 (9.9)	5 (8.2)	44 (9.3)	
정보전달	77 (51.3)	73 (27.9)	36 (59)	186 (39.3)	
합계	150 (100)	262 (100)	61 (100)	473 (100)	

$\chi^2 = 63.377, df=10, p<.001$

기사 논조 역시 세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chi^2 = 34.258, df=4, p<.001$). 1기의 경우 중립 72.7%, 부정 25.3%, 긍정이 2%로 나타났고, 2기는 중립 55%, 부정

40.8%, 긍정이 4.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기의 경우 중립 63.9%, 부정 19.7%, 긍정이 16.4% 순이었다. 즉 1기가 중립적 논조가 제일 높았고, 2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논조가 높게 나타났으며, 3기는 긍정적 논조가 세 시기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의 기사 정서는 불안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시기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chi^2 = 116.762$, $df=10$, $p<.001$). 1기는 불안 다음으로 기아가 13.7%로 높게 나온 반면, 2기에서는 분노가 25.7%, 3기에서는 희망/안도와 공감각이 각각 28.2%와 21.8%로 뒤를 이었다.

표 3. 기사 정서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공포	16 (7.5)	38 (9.6)	2 (2.6)	56 (8.2)
불안	125 (59)	182 (45.8)	28 (35.9)	335 (48.8)
분노	24 (11.3)	102 (25.7)	4 (5.1)	130 (18.9)
공감	3 (1.4)	22 (5.5)	17 (21.8)	42 (6.1)
희망 안도	15 (7.1)	29 (7.3)	22 (28.2)	66 (9.6)
기타	29 (13.7)	24 (6)	5 (6.4)	58 (8.4)
합계	212 (100)	397 (100)	78 (100)	687 (100)

※ (중복체크), $\chi^2 = 116.762$, $df=10$, $p<.001$

2. KBS 감염병 관련 보도의 '전문성'

감염병 보도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원 출처를 분석한 결과, 국내정부-지자체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료집단의료진이 12.3%, 일반 시민이 11.2%, 해외정부-지자체가 10.1%로 나타났다. 관련단체가 8.7%, 관련시민이 5.3%, 관련 기업체가 4.7%, 국내 전문가가 3.3%, 해외 전문가가 2.6%, 국제기구가 1.9%, 해외언론이 1.8%, 기타가 0.3%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사 내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는 2.8%였다. 정보원의 경우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chi^2 = 49.925$, $df=24$, $p<.05$), 1기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진(18.1%)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높았고, 2기

는 국내정부-지자체가 38.3%로 나타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기는 주로 해외에 기점을 둔 정보원 활용이 두드러졌는데 해외정부-지자체가 15.6%, 해외전문가가 4.6%, 해외 언론이 3.7%로 나타나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정보원 출처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국내 정부-지자체	71 (33)	153 (38.3)	29 (26.6)	253 (35)
해외 정부-지자체	24 (11.2)	32 (8)	17 (15.6)	73 (10.1)
의료집단의료진	39 (18.1)	44 (11)	6 (5.5)	89 (12.3)
국내 전문가	6 (2.8)	14 (3.5)	4 (3.7)	24 (3.3)
해외 전문가	8 (3.7)	6 (1.5)	5 (4.6)	19 (2.6)
해외 언론	3 (1.4)	6 (1.5)	4 (3.7)	13 (1.8)
국제기구	7 (3.3)	5 (1.3)	2 (1.8)	14 (1.9)
관련 기업체	8 (3.7)	22 (5.5)	4 (3.7)	34 (4.7)
관련 단체	11 (5.1)	40 (10)	12 (11)	63 (8.7)
일반 시민	21 (9.8)	40 (10)	20 (18.3)	81 (11.2)
관련 시민	7 (3.3)	26 (6.5)	5 (4.6)	38 (5.3)
기타	1 (0.5)	1 (0.3)	0 (0)	2 (0.3)
정보원 없음	9 (4.2)	10 (2.5)	1 (0.9)	20 (2.8)
합계	215 (100)	399 (100)	109 (100)	723 (100)

※ (중복체크), $\chi^2 = 49.925$, $df=24$, $p<.05$

감염병을 보도하는 기자는 여전히 비전문 기자가 81.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만큼 해외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많아 특파원도 16.3%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학전문기자의 경우 2.3%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나아가 전문기자는 세 시기 중 1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5.3%), 2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비전문 기자의 비율이 높았으며(87.8%), 3기는 상대적으로 특파원 비율이 높아(26.2%),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0.910$, $df=4$, $p<.001$).

보도의 분석력은 분석력이 있는 기사가 59.8%, 없는 기사가 40.2%로 나타나 분석력 있는 기사의 비중이 높았다. 분석력 역시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chi^2 =$

표 5. 기자 전문성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전문 기자	8 (5.3)	2 (0.8)	1 (1.6)	11 (2.3)
비전문 기자	111 (74)	230 (87.8)	44 (72.1)	385 (81.4)
특파원	31 (20.7)	30 (11.5)	16 (26.2)	77 (16.3)
합계	150 (100)	262 (100)	61 (100)	473 (100)

$\chi^2 = 20.910, df=4, p<.001$

23.386, $df=4, p<.001$), 1기는 분석력 있는 기사가 63.4%, 분석력 없는 기사가 36.6%를 보여 분석력 있는 기사 비중이 더 높은 반면, 2기는 분석력 있는 기사가 52.3%, 없는 기사가 47.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3기는 분석력 있는 기사가 16.4%, 없는 기사가 83.6%로 분석력 없는 기사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KBS 감염병 관련 보도의 '감염병 관련 사안'

보도 내 감염병 관련 사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질병역학이 22.2%, 진단치료가 18.9%, 일반대처가 13.2%, 감염대처가 7.2%순으로 도출되어 상대적으로 대처에 대한 내용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 분포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chi^2 = 56.501, df=8, p<.001$), 감염병이 발각된 1기에서는 질병 자체에 대한 진단치료 정보가 23.7%로 나타나 감염관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2기에서는 감염병 현황인 질병역학이 23.7%, 회복기인 3기에서는 일반대처의 비중이 29.8%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표 6. 감염병 관련 사안 빈도(%)

구분	1기	2기	3기	합계
질병 역학	65 (20.6)	133 (23.7)	26 (19.8)	224 (22.2)
진단 치료	75 (23.7)	97 (17.3)	18 (13.7)	190 (18.9)
감염 관리	121 (38.3)	222 (39.6)	45 (34.4)	388 (38.5)
일반 대처	21 (6.6)	73 (13)	39 (29.8)	133 (13.2)
감염	34	36	3	73

대처	(10.8)	(6.4)	(2.3)	(7.2)
합계	316 (100)	561 (100)	131 (100)	1008 (100)

※ (중복체크), $\chi^2 = 56.501, df=8,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형식 및 유형, 전문성, 감염병 관련 사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유형 프레임의 경우 공통적으로 스트레이트 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상황이 유동적이며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유형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 결과와 유사하게 뉴스 프레임 역시 정보전달 프레임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뉴스 프레임의 경우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2기에서는 의혹/고발 프레임 비중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도덕적 평가 프레임이 많았다. 이는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생 원인을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게 도덕적으로 귀인시키는 보도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위기/위험 프레임과 관련하여 감염병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보다는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전달 프레임이 많은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감염병 보도를 전달하는 논조와 보도가 유발하는 정서 역시 세 시기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1기에서는 중립적 논조가 제일 높았으며, 2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논조가 높게 나타났고, 3기는 긍정적 논조가 세 시기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도 정서의 경우 세 시기 모두 불안이 가장 높았지만, 1기는 불안 다음으로 기아가 높게 나온 반면, 2기에서는 분노가, 3기에서는 희망/안도와 공감의 뒤를 이었다. 이는 감염병이 발각되는 1기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주요 발생국인 해외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많았고 아직 국내 확진자가 적어 직접적으로 그 위험성을 체감하기 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감염병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됐을 때는 감염병의 급증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도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회복기인 3기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보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는데, 주로 확진자가

적은 현 상황을 보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보전달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원은 국내정부·지자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비전문 기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원인 및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분석력 없는 보도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온 점은, 감염병 보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한다. 감염병 보도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이 보도 내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는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반해 감염병에 대한 대처 정보, 특히 그 중에서도 감염 시 대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타의 재난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하여 위기나 위협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시청자로 하여금 불안을 넘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감염병을 보도함에 있어,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적 책임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 보도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보도의 비중이 증가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병변을 보임에 따라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해당 감염병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상황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도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보도에서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보도는 가짜뉴스가 증가하여 혼란이 기승되는 재난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뷰 보도와, 특정 측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기획 보도의 비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염병 보도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감염병은 여타의 재난 상황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는 전문기자의 비중이 매우 적었는데, 이는 지난 감염병 보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질병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 의학전문기자의 보도 필요성이 더욱 높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병 보도에 대한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도덕적 책임을 귀인시키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있어 자극적인 감정전달 프레임은 줄었지만, 도덕적 평가 프레임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 소재는 분명하나, 재난 상황 속에서는 이를 부각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덕적 평가 프레임은 재난 상황의 타개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 회피로 이어져 감염병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감염병 보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정보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 및 조직의 대응방안인 감염관리였는데, 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도 비중 있게 보도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대처가 감염병의 발각 및 확산 시기보다는 회복기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일반 대처방안 정보가 많이 보도되어 감염병 예방에 언론보도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 보도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질병 자체를 보도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외에 정치적·경제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도 많았다. 따라서 향후 분석 시기를 넓히고, 위의 사항을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프레임을 중심

으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허용강, 차수연, 서필교, 김소영, 박혜진, “감염증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12호, pp.75-113, 2015.

[2] 이재신, 최지영, “위험판단의 비합리적 성향 뉴스 기사의 피해자 규모 제시방법과 대치 효능감이 낙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6호, pp.40-63, 2016.

[3] 노지원, “한국 언론 ‘코로나19’ 보도 어땠나...과장·추측성·생중계식 보도 안돼,” 한겨레, 2020.2.13.

[4] 박주현,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제4호, pp.40-85, 2020.

[5] 장원일, *재해방송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경남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김재영, *질병재난보도에서 언론의 취재 및 보도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연구: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7] 최민음, 정희수,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pp.609-619, 2018.

[8] 안은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위협보도 프레임 연구-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9] U.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1992. 홍성태 (역),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2006.

[10] S. J. Bell-Rokeach and M. Defleur, “A Dependency Model of Mas 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Vol.3, No.1, pp.3-21, 1976.

[11] H. J. Jin and D. H. Han, “Interaction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Vol.44, pp.95-102, 2014.

[12] 김영옥, 이현승, 장유진, 이혜진,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2호, pp.121-154, 2015.

[13] J. Willis and A. A. Okunade,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Praeger, 1997.

[14] 이희영, 김정기, “질적 메트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국내 117개 프레임 연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4호, pp.7-38, 2016.

[15] 김성진, 박경우,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형태 연구: 승레문 화재사건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3권, 제2호, pp.5-41, 2009.

[16] 장솔지, 이승태, “국가재난상황 시 성별에 따른 대통령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 연구: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비교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1호, pp.109-147, 2016.

[17] 주영기, 유명순,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진단과 예후 프레임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5호, pp.30-54, 2011.

[18] 송해룡, 조항민,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6호, pp.45-68, 2015.

[19] 유승관, 강경수,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 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가을호, pp.140-169, 2011.

[20] 김용,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제11권, 제1호, pp.39-50, 2016.

[21] 정연구, “한국언론의 재난 보도 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pp.54-55, 1999.

[22] Ader, “A longitudinal study of agenda setting for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2, No.2, pp.300-312, 1995.

[23] 김영옥, “뉴스 속성의 정보소스 의존 정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언론보도와 정부 제공 이슈속성의 관련성 중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2권, pp.75-111, 2006.

[24] 조삼섭, 한규훈, “여성암 조기검진 촉진 캠페인의 설득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1권, 제1호, pp.248-275, 2009.

- [25] <http://www.cdc.go.kr/npt/biz/npp/nppMain.do>
- [26] 황애리, 나은영,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4호, pp.290-322, 2018.
- [27] 오해정, 최지향, “한국 공영방송 TV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에 따른 심층성 분석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3권, 제5호, pp.152-189, 2019.

저 자 소 개

표 시 영(Siyoung Pyo)

정회원



- 2011년 2월 : 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석사)
- 201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관심분야> : 미디어법·정책, 미디어 산업, 저널리즘, 뉴미디어